

2010.07.14(수)

가정 경제 뉴스 브리핑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 물가 관련

* 서민연료 연탄 값 9월부터 인상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원가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즉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연탄 값이 9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또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 시기만 남겨놓고 있어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연탄 보조금을 2020년까지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연탄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맞춰주는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11월1일자로 가격 인상을 고시했지만, 올해는 9월 이전까지 인상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탄가격은 지난 2002년 14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이후 2006년부터 해마다 20~30%씩 올라왔는데요. 지식경제부는 이 때문에 올해 석탄 및 연탄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연탄 가격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생활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Fact는 하반기에는 전기 및 가스요금도 조만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체감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2. 과태료 체납 관련

* 자동차 과태료 체납하면 운전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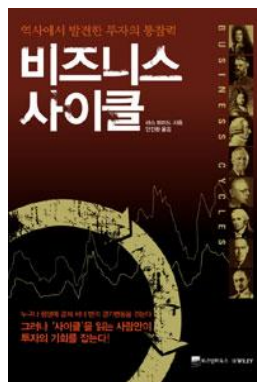
앞으로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즉,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 넘기고 내뺀 '암체 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3. 추천 도서

* 경제학을 배우려면 "비즈니스 사이클"을 보아라.



"경제학의 기본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죠?"라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흔히 맨큐의 경제학을 많이 추천합니다. 케인 지학파에 속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여 접근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즈덤하우스에서 출판한 라스 트비드가 지은 책인 '비즈니스 사이클'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 사이클을 중심으로 경제학설을 정리하고, 각종 경기 및 자산, 상품 사이클에 관한 가장 최신의 경제적 발견과 분석 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경제학자들의 이론과 비즈니스 사이클의 역사를 통해 경기를 예측하는 안목을 키우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총 5부로 이루어진 이 책은 현대 경제학이론의 기초인 케인즈 이론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는 전반부와 비즈니스 사이클 이론의 실제 적용을 기술하는 후반부로 나뉩니다. 1부는 존 로 시대부터 1700년대 유럽의 금융제도와 재정상태를 살펴본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난 주식시장의 호황, 귀금속 등의 실물자산 시장에서 생겨난 비즈니스 사이클과 금본위 화폐제도를 대체할 수단으로 등장한 지폐 도입 초기의 아이디어와 상황을 소개합니다.

2부는 1900년대 초반에서 1960년대까지의 경제학파나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시대 상황에 따른 비즈니스 사이클 이론을 소개하며 본격적으로 경기변동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나온 비즈니스 사이클 모델과 수학적 분석 방법을 소개합니다.

후반부인 4부는 '비즈니스 사이클'은 다루기 힘든 문제가?, 이에 속한 모든 경제 현상들은 왜 소수의 뚜렷한 파동을 만들어냈는가? 비즈니스 사이클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실제적 증상들은 무엇인가? 라는 3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부동산, 수집품, 귀금속 등의 자산시장에 나타나는 비즈니스

사이클을 설명하고, 자산 가격이 매겨지는 원리를 고찰합니다.

이 책을 맛보기 해볼까요?

요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즈니스 사이클> 17장의 몇 구절의 인용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세에 있는 동안 우리는 시장이 상승하기 전 시장이 상승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뼈저린 후회를 하며 가격이 조금이라도 뒷걸음질치면 곧바로 매수해 우리가 실수라고 인식하는 행동을 고치려 할 것이다.

주가가 더욱 오르면 대표성 효과가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최근 동향이 미래 상황을 대표할 것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효과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매수하려는 경향을 띤다.

도박에서 돈을 많이 딴 사람 중에는 다시 돈을 잃을 때까지 계속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그 돈이 실제 돈이 아니라 '하우스 머니'라 느끼기 때문이다.

언론은 주로 현재 분위기를 보고하는 데 여념이 없는 만큼 그 내용은 강세장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금융 분석가들도 (집단의 압박을 심하게 느끼며) 매도 권유보다 매수 권유를 훨씬 많이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강세장이 금융 버블로 확장되면 경고 신호는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허구적 일치성 효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처럼 시장을 강세로 평가하는 사람이 실제보다 더 많다는 잘못된 인상을 가진다."

무언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통찰력을 주는 문구라 소개합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